

중학교 여학생의 배구수업 연계에 관한 사례연구

한동수¹, 김윤상², 이주욱^{3*}

¹대전태평중학교 교사, ²충남대학교 체육학과 박사과정, ³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A Case Study on the Connection of Volleyball Classes for Middle School Girls

Dong-Soo Han¹, Yun-Sang Kim², Joo-Wook Yi^{3*}

¹Teacher, Daejeon Taepyeong Middle School

²Doctoral course, Dept. of Physical Education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³Professor,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College of Education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학교 여학생의 배구수업 연계에 관한 사례연구로 여학생의 학교 내 연계와 학교 외 연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의미를 분석하여 체육수업의 연계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은 정규교육과정 배구 수업부터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 교내리그, 지역연계 수업까지 분류하여 정리했다. 또한, 범주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연구결과는 배구수업의 실천과정에서의 경험, 창의·융합 수업을 활용한 배구수업으로 구분했다. 논의에서는 학교 내의 연계 수업, 학교 외의 연계 수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언으로는 교사의 실천 연구, 수업 연계 우수 사례연구,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으로의 연계 방안, 여학생 수업 참여와 연계에 관한 연구를 제시했다.

주제어 : 여학생, 배구수업, 연계, 창의, 경험, 사례연구

Abstract This study was a case study on the connection of volleyball classes for middle school girls. It presents concrete examples of girls' links in school and out of school. Data analysis was organized by classifying volleyball classes from regular curriculum, school sports clubs, club activities, school leagues, and community related classes. In addition, the meanings of the categorie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and reconstructed around the possibility of practice at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experiences in volleyball classes, volleyball lessons using creative and convergence classes. In the discussion, the study was analyzed as connected classes within the school and outside the school. Suggestions were given on teachers' practical studies, best case studies on class linkage, plans to link school sports-life sports-professional sports, and participation and connection of female students in class.

Key Words : Middle school girls, Volleyball class, Connection, Creativity, Experience, Case study

1. 서론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진흥의 조치 등) 5항 [법률 제14763호, 2017.4.18., 일부개정] [시행 2017.10.19.],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

육활동 활성화 지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도 제시된 여학생 체육 활성화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의 중점과제다 [1]. 그리고 2018학년도 추진 계획에서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 정책의

*This study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8.

*Corresponding Author : Joo-Wook Yi(joowoogyi@cnu.ac.kr)

Received January 2, 2019

Revised January 30,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차원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수업에 소외되거나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여학생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2-4]에서 Kim and Hong [2]은 국내 여학생 신체활동의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체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했다. 이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여학생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적 맥락과 변수를 고려하고,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과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연구[3,4]에서는 올바른 양성평등의 이해와 학교체육진흥법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학교체육 정책을 분석했다. 이 외에도 Jin [5]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 인프라의 증가, 체육수업에서의 참여 기회 증가, 학교 내 생활체육 활동 참여 기회 증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회 참여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한계점을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Go [6]는 여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여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소속감 및 학교만족도를 향상하는 요인이라는 연구도 있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은 146개국 중 94.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학생의 운동 부족 비율은 97.2%에 해당한다고 보고하면서 여자 청소년의 행동 변화 유도가 중요하다고 보도했다[8]. 이는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활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학교현장에서 실천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경쟁 활동 종목에서 여학생들은 성취감을 얻고, 스포츠 관련 지식 및 방법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지각한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고 팀으로 운영하는 네트형 경쟁 활동인 배구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Oh and Hong [10]은 네트형 경쟁 활동 중 배구형 수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료 교수와 협동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리더업¹⁾ 프로그램 및 뉴스포츠 적용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여학생은 팀원으로 역할을 하

1) ‘연소자에게 알맞도록 각종 구기의 원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으로 개량하여 구기 운동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구기의 기초적 기능, 팀워크 정신, 판단력의 함양 및 체력 단련을 기하고 자 하는 게임’을 말한다[11].

지 못하고,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여학생들의 관점에서 수업 참여 유형을 분석해야 한다[12]. 이는 학교체육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체육으로 전이되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과 다양한 활동이 연계(connection)²⁾되어 해당 종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체육 수업에서 연계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의 정책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과 같이 학교체육 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계(동아리³⁾, 방과 후 수업, 교내리그, 거점리그 등)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핵심 중 하나는 연계성을 갖고 스포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정책과 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환경적인 조건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학교현장에서 실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13]. 한편, 최근 체육 수업과 관련된 선행연구[13,14]에서는 학교체육과 지역연계에 한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것만으로 체육수업 연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교급 간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다양한 연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같은 경우,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급 간과 지역사회 그리고 평생스포츠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같은 종목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이다[5]. 이처럼 체육수업이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급 간 종목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내 교사 간의 연계도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공립 교사는 5년을 주기로 학교를 이동하게 된다[10]. 해당 종목을 지도하던 교사가 이동하면 그 종목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교사가 이동해도 다른 교사가 지속해서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학생의 학교 내 연계와 학교 외 연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의미를 분석하여 체육수업의 연계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에서 ‘연계’는 체육수업 중 배구수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의미는 학교체육에서 평생 체육까지 이어지는 방법을 통틀어 말한다. 구체적으로 배구수업을 통한 학교 내의 연계(학생 및 교사), 학교 외의 연계(학교급 간, 지역사회 및 생활체육, 평생 체육)를 포함한다.

3) 본 연구에서 동아리는 자율동아리가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말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의 연계에 관한 현장의 실천사례를 탐색하고, 연계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를 통해 체육수업 연계의 과정과 의미를 분석·해석했다.

2.1 연구 현장의 이해

본 연구의 현장은 D광역시에 위치한 미래중학교이고, 체육수업에서 배구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인 배구부의 연계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미래중학교는 남녀공학의 공립학교로 2015년 30학급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9학년도에 23학급까지 감소했다. 2015학년도부터 3학년 수업을 맡으면서 배구수업을 진행했다.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교육모형을 응용하여 경기 위주의 수업을 운영했다. 이와 연계하여 2016학년도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를 처음으로 참가했다. 체육관이 없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참가 여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2017학년도에는 배구클럽에 여학생만 30명 정도가 모였다. 3학년과 2학년이 주축이 되었던 클럽은 1학년 학생들까지 모여 3개의 통합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은 클럽에서 배운 지식을 체육수업에서 어려워하는 동료들 돕는 방식으로 동료 교수 전략을 진행했고, 팀 활동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 변형게임에 협동 학습전략을 활용했다. 또한, 체육수업의 스포츠교육모형을 확장하여 교내리그로 연계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흥미와 자발성을 이끌었다. 2018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아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를 운영하고, 강사를 지원받았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연계, 동아리, 방과 후 수업, 교내리그와 연계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중학교의 실천사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 네이버(NAVER)와 커넥트재단(CONNECT)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MOOC: Massive Online Open Course)⁴⁾ 교육 플랫폼의 에드위드(edwith)에 체육교과로는 유일하게 수업 연계의 사례로 소개되었다.

4) 2012년 이후 부상된 원격교육의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소셜네트워크의 연결, 각 분야 유명한 전문가의 참여,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자원의 수집을 통합해 놓은 것이다[15].

2.2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의 이해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충청남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 클럽 학생선수로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를 2년 연속 우승한 경력이 있다. 또한, 연구자는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배구수업을 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D광역시 배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5학년도부터 배구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2016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에 여학생들과 함께 참가하고 있다. 연구자는 학교체육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체득하게 되었다. 바로 연구참여자와 같은 여학생들이 배구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많은 경험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졸업생을 포함하여 총 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배경은 Table 1과 같다.

A 학생은 2016학년도에 2학년으로 배구동아리 매니저를 하고 싶으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다. 2017학년도에는 매니저와 세터의 역할을 하면서 팀을 위해 헌신한 학생이다. 2019년에 졸업한 학생 중 3명은 클럽 초창기 1학년 학생으로 3년 동안 배구클럽 활동을 지속했다. B 학생은 2018학년도에 주장을 맡아 책임감으로 팀을 이끌어나갔다. C 학생은 B 학생을 도와 클럽을 운영하였고, 동아리 반장을 맡았다. D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열정을 갖고 모든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했다. B, C, D 3명의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상대 팀으로 만나고 있다. 마지막 E 학생은 2018학년도에 가입해서 위의 선배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자신도 배구에 열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현재 2학년이면서 1학년 학생들과 2020학년도의 배구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Table 1. Background of study participants

name (age/career)	grad. year	position, role in a team
A (17age/2Ys)	2018	setter, manager(2017)
B (16age/4Ys)	2019	center defense, club captain(2018)
C (16age/4Ys)	2019	left defense, circle leader(2018)
D (16age/4Ys)	2019	right defense, manager(2018)
E (14age/3Ys)	attending	center defense, club captain(2020)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미래중학교 배구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 교내리그 등 연구참여자의 활동 참여일지, 소감문, 면담 자료(집단 면담, 개별 심층 면담)와 연구자의 수업일지, 활동일지를 수집했다. 집단 면담은 학기 초에 실시하였으며, 개별 심층 면담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5명을 선정하여 1인당 5회, 1회에 1시간 정도씩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기 초 집단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클럽 참가 동기와 종목 선택의 이유를 물었다. 개별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학교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일상적인 대화 형식으로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경험한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은 심층 면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자료 분석은 정규교육과정 배구수업부터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 교내리그, 지역연계 수업까지 분류하여 정리했다.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분석하여 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해석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해석학적 순환과정’[16]을 통해 배구수업의 실천과정, 창의·융합 수업을 활용한 배구수업의 가치로 범주화했다. 마지막으로 연계 수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범주화하여 논의했다. 또한, 범주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본 연구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연구참여자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찰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연구참여자가 검토를 거쳤다. 그리고 본교 체육교과협의회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 간 협의를 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월 2회씩 전문가 협의(스포츠교육학 교수 1명, 박사과정 2명, 체육교사 4명)를 실시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연구자, 연구참여자가, 동료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오류를 확인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들의 자료, 수업 영상, 사진, 면담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3. 연구결과

3.1 배구수업의 실천과정

본 연구의 배구수업 실천과정은 정규 체육수업 계획

및 평가방법부터 차시별 수업 과정, 교내리그를 포함한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교사와 학생이 경험한 의미를 분석했다.

3.1.1 ‘팀(team)’의 공동체성의 경험

본 수업은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배구수업을 팀스포츠험습모형(Team Sports Learning: TCL)⁵⁾과 스포츠교육모형을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학교의 특성상 남녀학생을 분반하여 수업을 운영했다. 여학생은 총 3개 학급이며, 학급당 3팀으로 구성하고 총 20차시 수업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방법은 개인적인 운동기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리그를 통해 팀 점수를 부여하고 팀원 간의 배려와 존중을 강조했다. 또한,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심리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개인별 운동기능 평가는 지속적인 과정 평가를 위해 도전횟수를 증가시켰다. 또한, 수업 내용은 팀 평가를 위해 차시별 수업계획을 Table 2와 같이 팀스포츠험습모형 전략과 팀 활동과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팀 만들기(Team Building)에서 팀 되기(Team Becoming), 팀 성장하기(Team Developing)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팀들은 리그를 진행하기 위해 팀 내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팀스포츠험습모형의 팀 구조 만들기에서 스포츠교육모형을 적용하여 선수 역할 뿐만 아니라, 비선수의 팀 내 역할을 부여하고 팀 규칙을 정했다. 교사는 팀이 역할 배정에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만 개입한다. 팀 내 역할에는 심판(4명), 경기기록 및 점수(2명), 기구관리(2-3명), 영상촬영(1명), 의료진(1-2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Oh [18]는 스포츠교육모형을 적용한 배구수업은 학생 개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이 상승하는 것과 학급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팀스포츠험습 단계를 거치면서 여학생들은 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팀 목표를 설정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1>‘어차피 하지 못하니까, 실패할 거니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의 실수에도 격려해준 팀원들 덕분에 미안해졌고 더욱 열심히 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5) 팀스포츠험습모형(TSL)은 팀과 팀 활동의 맥락에서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발달을 목표로 체계화된 수업모형이다[17]

Table 2. Example of a class plan by time[17]

time	month	contents of class	Team sports learning model strategy	team activity
1 - 3	March	Orientation, Task and Assessment Guide, Teaming	Teaming up	Team Building
		Creating Team name, slogan, lead-up game, etc.	Creating a team identity	
		To assign roles within the team, Creating team rules, etc.	Creating a team structure	
4 - 7	March	Basic function(peer/cooperative learning) -underhand pass - underpass game by team(total number) - net-type underpass game	Setting up team goals Reflect on your team	Team Becoming
		Basic function(peer/cooperative learning) -overhand pass - overpass game by team(total number) - net-type overpass game		
8 - 12	April	Basic function - serve(underhand/overhand serve-peer/cooperative learning)	Communicating with the team Resolving team conflicts	
		Basic function - general practice		
		Real function - attack		
		Role function - roles and duties within a team		
13 - 18	April - May	Competition function - transformation game - competition rules, method	The repetition and expansion of a major concept	
		Real function - volleyball league		
19 20	May	Volleyball class essay, journal of physical activities, portfolio	The expansion of a major concept, Reflect on your team	Team Developing
		Look back at volleyball class, reflect on your team	Dismantle the team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력해보지도 않고 저런 생각을 한 것에 정말 반성한다.
- ○○의 배구수업 활동 일지 중에서 -

인용문 <1>의 여학생은 체육수업에서 자신에 대한 편견과 참여 갈등에 관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팀원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 도전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2> 나는 어렸을 때 수술을 해서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 배구수업 첫 시간에 배구공으로 언더토스를 배운다고 해서 걱정이 커져만 갔다. 선생님께서 몸이 약해 배구공을 칠 수 없는 사람은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말씀드렸다. (중략) 그것은 배구공이 아닌 바로 풍선이었다. 곧바로 선생님께서 풍선을 불어서 주셨다. 다른 친구들도 부러운 듯이 “선생님! 저도 풍선 주세요!”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 순간 선생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다.
- ○○의 배구수업 활동일지 중에서 -

인용문 <2>는 여학생이 배구를 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배구공과 접촉할 때 느끼는 고통이다. 여학생들의 활동일지에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의 관점에서 배구를 생각하면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할 수 있는 수업 전략이 필요했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수업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 Seo [12]는 ‘아이의 눈으로 수업 보기’에서 대안적 수업 관찰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인용문 <2>처럼 수업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인용문 <1>처럼 교사와 학생의 외적인 활동 대신 학생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상황과 관련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보기는 학생의 관점에서 내면의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학습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3.1.2 전쟁이 아닌 경쟁의 의미 찾기

배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경쟁 활동 영역이다. 수업을 운영하다 보면, 팀 간의 경쟁은 자칫 팀 내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스포츠에서 경쟁은 중요한 의미이다. 다만 경쟁이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로 경험될 수 있도록 성찰해야 한다.

<3> (네트) 앞에 서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는 나의 실력에 친구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친구들도 나에게 뒤쪽을 추천했고 나도 뒤쪽을 택했다. 내가 서브를 넣을 차례가 와서 서브를 넣었지만, 옆으로 었나갈 때가 많아서 미안했다. 하지만 팀원들의 격려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노력하게 되었다. 공을 놓치거나 서브를 잘 넣지 못하면 비난과 짜증 대신 격려와 박수로 우리 팀은 A를 받았다. 혼자서는 매우 어렵지만, 팀원들과 함께라 극복한 배구! 정말 자랑스럽다.

- ○○의 배구수업 활동일지 중에서 -

배구수업은 3팀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인용문 <3>은 자신의 잘못으로 팀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난과 짜증’이라는 불안한 정서를 팀원들의 격려와 박수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례다. 그리고 교내리그는 학급 대항으로 이루어진다. 학급 내에서 어제의 상대 팀이었던 친구들이 교내리그에서는 한 팀이 된다. 체육수업과 교내리그의 연계를 통해서 배구 종목을 이해하는 폭이 확대되었고, 관계의 깊이도 더할 수 있었다.

<4> 교내리그는 각 반의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경쟁도 하지만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우리 반끼리도 팀워크를 기를 수 있고 친해지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중략) 스포츠를 통해 경기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고 내가 커서 중학교를 생각할 때 아름다운 추억과 꿈이 있다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체육활동은 규칙을 지켜야 하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고 건강을 지켜야 한다. 또 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며,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를 즐기는 것이다.

- D 학생의 교내리그 먼담 내용 중에서 -

인용문 <4>에서 학생은 친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줘서 자신감을 얻거나 성적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경기를 즐기는 교내리그가 자신에게 행복감을 준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에게 열린 참여를 보장하고, 연계를 통해 배구를 깊이 이해하는 활동은 성취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체육 연계 활동은 여학생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주체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1.3 연계를 통한 성숙한 팀으로 성장

배구수업 시간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여학생들은 팀별로 원을 그려서 연습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특성

을 반영하여 팀별로 패스 연습을 게임으로 진행했다. 단순한 패스 게임도 어려워하는 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원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팀에서 뛰어난 학생이 교사의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다.

<5> 배구의 ‘배’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모여서 팀을 이뤘다. 연습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막막해서 열심히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 공을 손목으로 받아내고 치고 할 때는 진짜 아파서 조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열심히 재미있게 연습하는 팀원들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우리 팀은 쳐도 된다면서 정말 편하게 경기를 시작했다. 서브를 넣을 때 못 넘기면 “괜찮아, 괜찮아”를 연발했고 서브에 성공하면 박수와 함께 방방 뛰며 구호 “그라샤”를 외치며 좋아했다. 경기에 쳐도 우리 팀은 “채가 잘하는 거야, 다음에 이기면 돼”라며 시원하게 넘기고 웃으며 오히려 박수를 보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겨서 그런가?’ 다음 경기들은 연속해서 이겼다. 우리 팀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육 시간, 배구를 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고 매일매일 경기가 기대됐다.

- C 학생의 배구 에세이 중에서 -

팀의 공동체성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용문 <5>는 “그라샤”팀의 주장이 쓴 글로 팀 실력은 부족하지만, 팀원들이 격려와 배려로 지는 것이 무섭지 않은 ‘재미있는 팀’이라고 비유했다. 이러한 성숙한 팀으로 성장은 학급 대항 교내리그로 연계되어 새로운 학교 스포츠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교내리그를 통한 긍정적 변화는 일반교과 교사에게도 좋은 평가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학생이 개인에서 팀으로 성장하기 위해 체육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가까운 배움의 연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동아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체육수업 및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2 창의·융합 수업을 활용한 배구수업

본 연구자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의 동아리 활동 수업에서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습자 주도형으로 ICT를 활용하여 창의·융합 수업을 해보고 싶었다. 창의·융합 수업을 조사하다 보니, 연구 현장인 학교에서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좌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⁶⁾과 같은 ICT 기술을 접목한 수업이 없었다. 연구자는

교육청의 지원으로 학교혁신 프로그램을 동아리 수업에 접목하여 운영했다. ICT 기술과 Online을 활용한 수업은 실행 과정을 보여주고, 자료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더불어 학교 내, 학교급 간,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3.2.1 ICT를 활용한 체육수업 정보 공유의 장

미래 교육을 바라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20]. 이를 대비한 수업으로 ‘거꾸로 교실’이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 수업방식의 핵심은 자기 주도학습을 표방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체육교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PC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며, 파트너십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사는 학생활동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요소를 통합하는 창의·융합 수업을 시도했다.

<6> ‘edwith’라는 교육용 앱을 처음 접하였을 때는 어려웠지만, 설명을 하나씩 듣고, 직접 실행하며 영상을 제작하고, 사진을 편집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올린 것을 보고, 다른 친구가 배운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나만이 아닌 내 친구들, 후배들이 만드는 것을 보고 나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고 배워 재미있었어요.

- B 학생의 배구 연계 수업 면담 내용 중에서 -

본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처음 접하는 사람도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용문 <6>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운동지식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PC나 모바일 앱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등록된 자료는 정규 체육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시범이 되는 교수·학습 자료가 된다. 수업자료로 만든 것을 바탕으로 동아리 여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위한 지도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학습효과가 커지는 창의·융합 배구수업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Fig. 1은 ‘나의 열정이 살아 숨 쉬는 배구’ 강좌에서

6) 온라인을 통해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 내용에 대해 사전학습을 수행하고, 이어지는 교실수업에서는 학생들 간의 토론 및 협력 학습을 수행하는 수업을 의미한다[19].

7) <https://www.edwith.org/dshansport/>

기본기능을 연습할 때, 팀 동료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곧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 사례이다. 학생들이 만든 자료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을 제공했다. 이러한 보상은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각 팀원은 동료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기본기능을 익히게 되고, 전체 팀원의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게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팀 내의 협동을 강조한다.



Fig. 1. Students use the basic function class materials made by smartphone

3.2.2 ‘글’로 소통하는 융합 수업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 에세이(essay)와 체육수업 일지 쓰기 등을 시도했다. 글쓰기 자료는 여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것에 관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 학생의 관점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7> 동아리를 통해 에드워드 앱에다가 칭찬해주는 시간도 매우 유익했던 것 같아요. 글로 다시 정리하고, 내가 배구하는 자세를 영상으로 다시 보고, 고치고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스승, 가르침이 된다는 게 좋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라는 것도 다시 알게 됐죠.

- C 학생의 배구 연계 수업 면담 내용 중에서 -

교사는 학생이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글로 표현하면서 수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ICT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고,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의미와 체육수업에서 알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인용문 <7>은 학생이 앱을 통한 정보 공유의 확장성뿐 아니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 중 수업일지를 통한 중학생의 체육수업에 관한 인식 연구[21]에서 학생들은 체육수업에 대한 기대감, 체육수업을 통한 즐거움, 과제수행에 대한 성취감, 수업방식에 대한 흥미가 긍정적인 인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글쓰기와 융합한 수업을 통해 체육 교사가 여학생들이 수업 상황에서 느끼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세우고, 수업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위해서 ICT를 체육수업에 활용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의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22]. 이러한 결과는 배구수업의 경험이 가까운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 곳까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연계 수업의 다양성과 가능성

본 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계 수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학교 내와 학교 외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학교 내 연계는 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교내리그, 학급 간, 학생 간 연계의 의미로 범주화할 수 있다. 학교 외 연계는 초·중·고의 학교급 간의 연계와 지역사회의 범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커넥트재단의 인터뷰⁸⁾에서 학교체육이 생활체육과 평생 체육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4.1 학교 내(內): 학생과 교사 연계

학교스포츠클럽에 여학생 배구부가 생기면서 정규 체육수업도 활기차게 운영되었다. 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계는 여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취감으로 발현되었다. 이것은 교사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학생들 간의 연계, 즉 선후배 간의 연계가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8> 어~그렇구나! 나가는구나! 조금 있으면. 음! 또 1학년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나가면, 2학년이 3학년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2학년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3학년보다 더 재능 있는 애들도 많은 것 같고, 한 연도도 비슷하잖아요.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2학년은 그것보다 노력도 되게 열심히 하고, 3학년들에 비해서 뭔가 하려는 것이 있으니까. 꼭 다음 시험에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 A 학생의 심층 면담 내용 중 -

인용문 <8>를 작성한 학생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선수로 참여했다. 자신이 졸업한다는 아쉬움을 후배들이 3학년이 된다는 것으로 말했다. 그리고 후배들을 믿고 좋은 성적을 얻길 바라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후배가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내용도 있다. 이처럼 여학생들이 학년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동급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9>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팀 인원) 너무 적어도 하기 어려운 배구. 나는 협동하는 운동보다 혼자서 하는 운동을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 느낌을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중략) 처음으로 간 방과 후에서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해주신 선배들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냥 조금 하는 것뿐이었는데 계속 '잘한다, 잘한다.'라고 해주신 것이 용기랄까? 힘을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던 것 같다.

- E 학생의 배구 연계 수업 일지 중에서 -

인용문 <9>처럼 후배는 선배의 작은 관심으로 현재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며, 후배를 위해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 간의 연계는 연구자에게 힘이 되고, 연계 수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현장의 학교는 배구수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배구는 실내 스포츠이지만 체육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 공간의 제한은 기후 상황에 따라 연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동아리 수업과 토요일 방과 후 활동은 옆의 초등학교 체육관을 대관해서 활동해야 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와 체육수업 연계를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교사 연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10]에서는 교사가 5년 주기로 학교를 이동하게 되어 학생 수업의 지속성과 학교스포츠클럽 등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바뀌어도 다음 교사가 학생들을 해당 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교사 간 연계의 사례는 인용문 <6>, <7>과 같이 수업 연계의 과정을 축적한 ICT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자료 제시

8) <https://blog.naver.com/edwith/221308522983>

로 가능하다. 이것은 체육교과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핵심 역량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4.2 학교 외(外): 학교급 간, 지역사회 연계

미래중학교 여학생들은 초등학생들과 배구수업 연계를 가르치는 경험을 했다. 연구 현장 학교 옆의 초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계 수업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배구 연계 수업을 받은 6학년 여학생이 배구부에 가입하기 위해 본교로 진학한 학생들도 있었다. 다음은 초등학교와 연계 수업에 관한 소감문이다.

<10> 올해 연계 수업으로 많은 것이 변했는데, 처음으로 지원을 받아 배구부 코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배구부 인원을 ○○선생님께서 혼자 가르쳐주시는 데 정말 큰 어려움이 많았는데 코치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배구를 배웠습니다. 물론 훈련의 강도와 시간은 많이 늘어났지만 힘든 만큼 즐거움은 배가 되었고, 실력이 향상되는 나 자신과 친구들을 보며 뿌듯해졌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시간에 초등학생과의 연계인데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많이 막막했지만, 피구 공, 빅발리볼, 배구 공 순으로 차례로 하다 보니 초등학생들도 실력이 향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나면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 D 학생의 배구 연계 수업 일지 중에서 -

인용문 <10>처럼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배구 강사를 지원받았다. 덕분에 연구자가 지도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동호회 및 고등학교 배구팀과 연계하여 연습경기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D 광역시에는 배구대회의 수가 적어 여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주변 교사와 협력하여 학교대항 비공식 경기를 진행했다. 승패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배구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대학배구 리그와 관련하여 동아리 학생들의 경험을 확장하고자 계획하던 중, 본교 댄스동아리 학생들은 처음으로 대학배구 리그에 치어 댄스팀으로 공연했다. 비록 배구수업은 아니지만, 댄스동아리 학생들은 새로운 무대를 경험했다. 배구동아리 학생들은 대학배구 리그와 V-리그를 관람하면서 경기를 분석하는 기회도 경험했다. 한편, 대학교 배구선수들이 연구 현장에 방문해서 동아리 학생들에게 배구 클리닉 연수를 했다. 대학 배구선수들과의

연계는 여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학생들의 일지에서도 “새로운 것을 경험했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기존의 선행연구[13,14]에서도 학교체육에서의 지역연계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참여의 폭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학교 외의 연계를 실천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 지점은 수업 연계의 의미를 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학교급 간, 지역, 대학 등으로 실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실천적 사례는 여학생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수업 연계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여학생 배구수업 연계에 관한 사례 연구로 정규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배구수업을 실천하고, 다양한 학교 밖의 수업 연계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첫째, 배구수업의 실천과정에서의 경험은 ‘팀(team)’의 공동체성의 경험, 경쟁이 아닌 경쟁의 의미 찾기, 연계를 통한 성숙한 팀으로 성장으로 구분했다. 둘째, 창의·융합 수업을 활용한 배구수업에서는 ICT를 활용한 체육수업 정보 공유의 장, ‘글’로 소통하는 융합 수업으로 범주화했다. 논의에서는 학교 내의 연계 수업, 학교 외의 연계 수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는 실천사례로 여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의 활성화를 자세히 기술하고, 학교체육 연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 수업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수업 연계에 있어서 교사의 실천이 어려운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학생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수업을 실천하는 우수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하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학교스포츠클럽’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셋째, 학교체육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연계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학생 선수 양성과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수업 참여와 수업 연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School Sports Promotion Act*.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D%95%99%EA%B5%90%EC%B2%B4%EC%9C%A1+%EC%A7%84%ED%9D%A5%EB%B2%95#undefined>
- [2] W. J. Kim & A. R. Hong. (2017). A Study on the Activating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on the Korean Girls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1(3), 73-93. DOI: 10.16915/jkapesgw.2017.09.31.3.73
- [3] H. W. Jung & D. H. Kim. (2016). An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Polices for Girls'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4(4), 199-215.
- [4] Y. K. Jin & H. S. Lee. (2016). Changes and Development Subject of Physical Education Policy for Activating Girls Physical Activities in Schoo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1(3), 73-93. DOI : 10.16915/jkapesgw.2016.12.30.4.89
- [5] Y. K. Jin. (2017). How far have we come with the girls' school sports vitalization policy? *Sports science*, 139, 70-79.
- [6] J. K. Go. (2018). A girl student physical education vitalization. *woori-physical education*, 19, 22-29.
- [7] M. K. Park & S. H. Jun. (2018). The Effect of Middle School Girl Student`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School Sports Club Tournaments on Self-esteem, School Belonging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2(2), 23-41. DOI: 10.16915/jkapesgw.2018.06.32.2.23
- [8] T. H. Kwon. (2019). *Lack of Korean Youth Exercise Worst in the World*. Female students are the 'Worst' of 146 countries. KBS new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412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 [9] H. W. Kim, C. J. Kim & G. S. Oh. (2017).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Exercise Performance Competence, Perceived Athletic Ability and Sports Value through Competitive Sports Class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5(3), 91-105.
- [10] E. S. Oh & S. J. Hong. (2016). Difficulty and improvement scheme of teaching volleyball type i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of the net type competition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2(2), 27-38.
- [11] T. S. Lee. (2000). *The Encyclopedia of Physical Athletics*. Seoul: Minjungseogwan.
- [12] K. W. Seo. (2009). See Class with your child's eyes: Understanding teaching anthropology as an educational practice. *Journal of Educational Anthropology*, 118th Monthly Presentation, 1-40.
- [13] K. J. Yoon & C. H. Lee. (2019). A study of investigating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school-community connection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6(1), 107-122. DOI: 10.21812/kjsp.2019.01.26.1.107
- [14] K. J. Yoon & H. W. Jung. (2018). A study of exploring aspects of school-community connection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5(3), 1-20. DOI: 10.21812/kjsp.2018.07.25.3.1
- [15] M. N. Choi & H. L. Roh. (2015). A study about a convergence development plan of MOOCs based e-learning in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9-21. DOI: 10.14400/JDC.2015.13.7.9
- [16] Y. S. Choi. (1999). Qualitative Data: Focused on Collective Life History Research. *Anthropology of Education*, 2(2), 1-22.
- [17] B. J. Lee. (2013). Development of team-sports learning model for social skills development, reference of physical education-Hanmadang, 59-82.
- [18] S. H. Oh. (2019). The Meaning of Class Community Competency Change through Volleyball Class with Sport Educ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6(4), 73-91. DOI: 10.21812/kjsp.2019.10.26.4.73
- [19] D. Y. Lee & J. H. Park. (2016). Exploring new directions of flipped Learning with a focus on teacher's percep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1-9. DOI: 10.14400/JDC.2016.14.8.1
- [20] H. C. Joo & S. B. Kim. (2018). A Study on Middle and High School PE Teacher's Perceptions of Technology Physic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2), 81-99.
- [21] E. J. Kim, K. I. Jung & J. W. Park. (2012). Positive Understanding on the Physical Education Class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Class Diarie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7(3), 63-77.
- [22] H. C. Joo & S. B. Kim. (2018). A Study on Middle and High School PE Teacher's Perceptions of Technology Physic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2), 81-99.

한 동 수(Dong-Soo Han)

[중신학원]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교육학석사)
- 2019년 8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대전태평중학교

교사

- 관심분야 : 학교체육, 학교스포츠클럽, 캠핑, 질적 연구
- E-Mail : gugudak@naver.com

김 윤 상(Yun-Sang Kim)

[충원]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학교체육, RC, 질적 연구

- E-Mail : 8811p@naver.com

이 주 옥(Joo-Wook Yi)

[충원]



- 2002년 2월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

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야외교육, 캠핑, 질적 연구
- E-Mail : joowoogyi@cnu.ac.kr